

실속 재테크

기준금리 9개월째 동결... 저금리 맞춤형 전략

고금리 대출부터... 빚갚기가 우선

제2금융권·신용대출부터 먼저 갚아야
스마트폰 전용 예금 연 4.7% 금리 보장

9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금리 동결로 시중 은행의 정기예금은 연 4%대 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치솟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불황과 저금리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재테크 전략을 세우는 것은 필수다. <빚갚기 재테크 시작>=지난해 광주·전남 지역 가계대출이 27조원에 육박했다. 1인당 부담해야 할 이자만 60만원이 넘는다. 4인 가족일 경우 1년에 240만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재테크를 시작하려면 가계부채부

터 상환하는 것이 급선무다. 빚을 갚는데도 순서가 있다. 금리 부담이 적은 쪽으로 대출을 모으고 상환 우선 순위를 정한다. 먼저 연체중인 대출, 금리가 높은 대출, 소액 대출, 만기가 가까운 대출 순으로 상환을 한다.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을, 담보대출보다는 신용대출을 먼저 갚는 것이 좋다. 고금리 대출을 먼저 상환할 경우 신용등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신용등급이 오르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은 10~20년 만기의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 원리금도 함께 분할 상환해 나가는 게 좋다. <재테크 전략>에 맞게=부동산 침체, 저금리, 세계 경기 둔화 등 만만치 않은 재테크 환경이 두렵다면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게 좋다. 목돈 마련부터 해야한다면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주는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최근 스마트폰 이용자 급증하면서 시중은행들이 스마트폰 전용예금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최고 연 4.7%까지 금리를 보장해주는가 하면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각종 수수료도 면제된다. <보험> '채용사이버정기예금'과 KB국민은행 'KB스마트폰 예금'은 연 4.7%로 비교적 높은 금리를 주고 있다. 하나은행 'E-플러스 정기예금'과 광주은행 'KJB 스마트폰 정기예금'은 각각 연 4.5%, 4.4%의 금리를 보장해준다. <이민기자 emlee@kwangju.co.kr

세금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은행에서 만기예금을 찾을 때는 이자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하지만 신탁,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예금상품들을 선택하면 비교 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탁과 새마을금고는 1만~3만원 수준의 출자금만 내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조합원이 되면 출자금에 대한 배당도 받을 수 있고, 1인당 3000만원 이하 정기예금의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해준다. 장기 목돈 마련을 원한다면 저축성 보험도 좋다. 10년 이상 유지 할 경우 이자소득세(15.4%)를 내지 않아도 되고 이자에 이자가 붙은 복리효과도 누릴 수 있다. 또 급전이 필요할 때는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단 중도 해지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므로 장기적으로 묶어둘 돈이 아니라면 가입하지 않는 게 낫다. <이민기자 emlee@kwangju.co.kr



봄빛처럼 화사하게

8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5층 스포츠매장에서 직원들이 강렬한 네온컬러의 스포츠웨어를 선보이고 있다. 올 봄에는 의류부터 운동화까지 화려한 네온컬러가 인기를 끌 전망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로또 당첨자 27% "당첨 기쁨 혼자서" 로또복권 1등 당첨자의 4명 중 1명은 당첨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은 예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나눔로또가 지난해 로또복권 1등 당첨자 342명 중 11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보면 '당첨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겠다'란 물음에 41%가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당첨금 수령 현장에서 1등 당첨자에게 구두로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무에게도 안 알린다'는 이들도 27%에 달했다. '친척에게 알린다'는 15%, '자녀에게 알린다'는 10%였다. <연합뉴스

마그네틱카드 ATM 이용 2014년까지 2015년부터 은행자동화기기(ATM)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을 때 마그네틱카드 방식(MS) 카드를 쓸 수 없게 된다. 8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는 2015년 1월부터 ATM에서 마그네틱카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2013년 3월부터 신용카드의 신규 발급이나 교체 시 현금서비스, 카드론, 결제 등 모든 신용카드 관련 기능은 IC 카드로 발급할 예정이다. 2014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영업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마그네틱카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을 ATM에서 쓸 수 없도록 시범 차단을 계획했다. 금융 당국은 마그네틱카드 ATM에서 현금인출이나 계좌이체 등을 단계적으로 중단해 9월

소득 불평등 금융위기때보다 심각

소득 하위 10%에 속하는 빈곤층의 소득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부진해 소득불평등도가 작년에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하위 10%의 경제소득(P10) 대비 상위 10%(10분위) 소득경계(P90)의 비율인 P90/P10 비율은 지난해 4.82로 2010년의 4.80보다 소폭 상승했다. P90/P10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주로 사용하는 소득

분배지표의 하나다. 이 비율이 커졌다는 것은 빈곤층과 고소득층의 소득격차가 그만큼 벌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빈곤층과 중산층의 소득격차도 더 벌어졌다. 소득 하위 10% 경제소득과 중위값(P50)의 비율인 P50/P10 비율 역시 2010년의 2.53에서 작년 2.59로 상승했다. 소득 불균형 상태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전체가구 가처분소득 기준)도 지난해 0.311로 전년 0.310보다 다소 올랐다. <연합뉴스

혁신도시 건설 46%가 지역업체

광주·전남공통혁신도시 등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비율이 4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조달 발주된 15건의 혁신도시건설사업 점검 결과, 총 계약금액인 2960억원 중 45.9%에 달하는 1358억원을 지역업체와 계약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국가발주 경쟁입찰공사에서 지역업체가 평균 20%내외로 수주한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높은 이유

는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 40% 이상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특히 조달청이 40%이상 지역업체와 공동도급하면 그 비율이 높을수록 입찰에 추가 가산점제도를 도입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나주 혁신도시에 건립 중인 우정사업정보센터는 지역참여비율이 50%로 5점의 가산점을 부여했다. 국립전파연구원 신축공사도 지역업체 참여가 50%로 2점이 가산됐다. <정복욱기자 jwpark@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JHR (Korea Juhon Real Estate) featuring a knight on a horse and text: '말 소리가 잘 안들린다구요?' '난청은 물론 이명까지 -젠 톤-' '국제보청기' with contact numbers for various branches.

Advertisement for Asset Korea since 2005, featuring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nd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with various real estate listing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주)호남랜드, featuring '태양광발전소 건물 (지붕, 옥상) 임대 구함' and '12년 사용후 건물주에게 기부' with details on location and terms.

Advertisement for 대인동상일부동산, featuring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and '12년 사용후 건물주에게 기부' with details on location and terms.

Advertisement for 상무랜드공인중개사, featuring '복합상가(매매)' and '토지(매매)' with details on various real estate transactions.

Advertisement for 행복한 공인중개사 (세민군 변산반도 펜션 전문), featuring '경포 원룸, 펜션, 다세대주택' and '변산해수욕장 리조트 부지' with details on real estate services.